

#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하는 여인들』과 아테네 민주정: 아드라스토스와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 비교를 중심으로

장시은\*

## 【요약】

이 글의 목표는 에우리피데스가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델리온 사건이라는 시사적 소재를 어떻게 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 작품이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특별한, 그러면서도 익숙한 장례연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에우리피데스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장례연설 및 장례 과정을 이 작품 안에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과 당대 장례연설의 대표적인 예인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 과장된 감정의 표출이 드러난 코로스의 애탄가와 내용의 비일관성으로 비판받는 에우아드네의 자살 장면이 모든 청중이 참여하는 일종의 장례 의식의 부분으로 의도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탄원하는 여인들』이 델리온에서 사망한 아테네인들을 위한 장례 의식을 극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아테네인들을 위로하고 아테네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작품임을 확인한다.

【주제어】 장례연설, 장례 의식, 에우리피데스, 페리클레스, 델리온 전투, 아테네 민주정

---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5406)

<https://doi.org/10.34162/hefins.2020..24.004>

## I. 들어가며

『탄원하는 여인들』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들 가운데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온 작품이다. 어조의 급작스러운 변화, 내용 간의 비일관성, 과장된 감정의 표출 등등 때문에, 독자들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결함이 많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sup>1)</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원하는 여인들』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에우리피데스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시사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즉 『탄원하는 여인들』은 당대의 중요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인 작품이며, 청중들이 그 사건을 상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극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레나이아와 대 디오닉시아 축제에서 행해진 그리스 비극 공연은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아테네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함께 비극 공연을 감상하면서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sup>2)</sup> 만약 한 작품이 최근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상기시킨다면 비극 공연의 공적 기능은 더욱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탄원하는 여인들』은 바로 그러한 작품이었다.

표면적으로 『탄원하는 여인들』은 아르고스인들의 시신반환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명백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극이 상연되기 얼마 전 아테네 시민들이 겪었던 텔리온 전투와 시신반환 사건이다.<sup>3)</sup> 텔리온 전투는 기원전 42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8년째가 되던

1) Collard (1975), p. 24.

2) Goldhill (1992), pp. 100-106.

3) 상연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작품 안에서 암시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424년에서 418년 사이의 해로 의견이 분분하다. 상연 연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Collard (1975), pp. 8-14 ; 내용적인 측면 외에, 운율적인 특

해 초겨울에, 보이오티아에 있는 텔리온 인근에서 아테네 연합군과 테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보이오티아 연맹군 간에 벌어진 전투이다.<sup>4)</sup> 아테네인들은 여기서 패배한 후 전사자들의 시신 인도를 위한 휴전 협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성역인 텔리온을 먼저 떠나기 전까지는 시신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후 17일째가 되는 날, 텔리온이 보이오티아 군에 의해 함락되고 나서야 전사자들의 시신이 아테네군에게 인도되었다.<sup>5)</sup> 투퀴디데스는 아테네인들의 입을 빌려 이 행위가 ‘헬라스인들의 법’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였다고 말한다. 이 일은 동료 시민인 아테네인들에게, 무엇보다 그들의 전우들과 친지들에게 매우 참담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모여 『탄원하는 여인들』을 관람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텔리온에서의 이 사건을 상기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에우리피데스가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텔리온 사건이라는 시사적 소재를 어떻게 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작품의 주요 부분이 텔리온에서 사망한 아테네인들을 위한 장례 의식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특히 『탄원하는 여인들』의 독특한 특징, 즉 이 작품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특별한, 그러면서도 익숙한 관행이었던 장례연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일군의 학자들은 아드라스토스의 이 연설이 아테네의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에 대한 풍자라고

---

징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Caedel은 100개의 3보격trimeter 안에서 ‘단장’이 아닌 ‘단단단’의 ‘쫄개진 음보’를 사용하는 개수를 조사해서,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그 개수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의해서도 『탄원하는 여인들』은 423년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Caedel (1941), pp. 66-89.

- 4) Thuc. 4.97-101. 텔리온 전투는 아테네가 보이오티아의 여러 폴리스에 민주정체를 심고 보이오티아 연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행해졌다.
- 5) Hornblower는 투퀴디데스가 “전투 후 17일째에야 시신이 반환되었다”고 그 기간을 강조함으로써 텔리온에서 죽은 전사자들의 부패한 시신들을 모습을 독자들이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Hornblower (1991), p. 316.

해석한다.<sup>6)</sup> 반면,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문명의 보호자로, 민주정의 창시자로 그려진 테세우스의 모습과 민주정에 대한 논의, 아테네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연설의 삽입을 아테네에 대한 찬가로 보고,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킨다.<sup>7)</sup>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탄원하는 여인들』이 아테네에 민주정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 작품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을 당대 장례연설의 대표적인 예인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과 비교함으로써, 에우리피데스가 당대의 장례연설 및 장례 과정을 어떻게 이 작품 안에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이 작품 전체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로 하여금 아테네의 장례절차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아테네 장례연설의 기능처럼 아테네인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아테네의 이상적 가치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만든다.

## II. 신화적 배경과 아테네 장례연설 *epitaphios logos*

『탄원하는 여인들』은 오이디푸스 사후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관련한 유명한 신화를 배경 소재로 삼고 있다. 에테오클레스와의 왕위 다툼에서 밀려난 폴뤼네이케스는 아르고스로 가서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의 사위가 된 후, 그와 아르고스 군사들을 이끌고 왕위를 되찾기 위한 테바이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아르고스는 패하게 되고, 테바이의 일곱 영웅들에 맞서 싸우던 아르고스의 일곱 장수 외에 수많은 아르고스인들

6) Fitton (1961), pp. 430-461 ; Smith (1967), pp. 151-170. Gamble (1970), pp. 385-405.

7) Zuntz (1955), pp. 23-31; Toher (2001), pp. 332-343. Goossens (1932), pp. 440-460 에서는 더 나아가 이 작품이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이 목숨을 잃게 된다. 아르고스 일곱 영웅의 어머니들은 장례를 위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되돌려 달라고 에테오클레스의 사후 테바이의 권력을 잡게 된 크레온에게 요청하지만 크레온은 이를 거부한다. 에우리피데스는 『탄원하는 여인들』을 시신을 반환 받지 못한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와 죽은 영웅들의 어머니들이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에게 찾아와 비탄하며 탄원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sup>8)</sup>

잠시 후 이 글에서는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856-917)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그 연설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테세우스는 처음에 아드라스토스의 요청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아르고스 여인들의 애곡과 어머니 아이트라라 설득에 마음을 돌린다. 아이트라라는 아르고스 인들이 신들을 무시하고 불행을 자초했듯 아테네도 신들을 무시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며 탄원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신들이 원하는 옳은 일이며 명예를 높여줄 일’(301-305)이라고 설득한다.<sup>9)</sup> 죽은 이들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헬라스 전체가 준수하는 법도를 뒤엎는 *nomima e pasēs sungcheontas hellados pausai*’(310-11) 짓이고, 그런 불의를 저지는 자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제재해야만 한다(307-8). 테세우스는 이전에도 악당들을 응징함으로써 헬라스인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이 일을 받아들여 ‘말로

8) 테세우스 신화, 특히 그가 탄원하는 도시 혹은 인물을 받아주고 돕는 신화는 아테네가 고대 사회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기원전 6세기 이후 여러 문학 작품들과 예술 장르에서 소재가 되어왔다. 아르고스의 영웅들의 시신 반환 사건을 다룬 신화만 해도 이미 핀다로스의 송가들 및 다른 비극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테세우스가 ‘민주주의’의 창시자이며 ‘탄원자들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아테네의 패권이 강해지기 시작한 기원전 6세기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에우리피데스는 기원전 431년 상연된 『메데이아』에서도 테세우스를 등장시켜 탄원자를 보호하는 아테네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Pelling (1997), p. 226. 테세우스 신화 중 특히 이 시신반환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른 비극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기원전 6세기 핀다로스 송가에서도 언급된다. (올림피아 찬가 6권, 네메아 찬가 4권) 지금은 유실되었지만 아이스퀼로스의 『엘레우스인들』에서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9) 이하번역은 전반적으로 천병희 역 (2009)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설득해서 *logoi si peithōn*, 그게 안 되면 창의 힘으로 *biai doros*’ 아르고스 전사자들의 시신 반환을 위해 나서겠노라 말한다(338-346). 그는 시민들의 승인을 얻어 테바이에 사절을 보내 평화로운 시신 반환을 요청하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로 간다. 테바이로 간 아테네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테세우스는 아르고스와 테바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인도받아 엘레우테리아 인근에 묻은 후 아르고스의 일곱 장수의 시신은 엘레우시스로 운송해 온다. 아드라스토스와 아르고스의 여인들이 애곡하는 사이, 돌아온 테세우스는 아드라스토스에게 “이 영웅들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발군의 용기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를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말해 주라고 요청한다(841-843).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당대의 아테네 장례연설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테네에서는 5세기 초반 전몰자를 위한 장례 의식이 법률로 규정되어 행해졌다.<sup>10)</sup> 전통적으로 장례 의식의 중심에는 친족 여성들의 애곡 *goos*과 전문 가인의 애가 *threnos*가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 전몰자들을 위한 장례 의식은 사적인 애도를 가능한 한 배제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여성들의 애도는 공식적인 장례행사 전후 개별적으로 무덤에서 애도로 제한되었다. 전사자들의 유골은 부족 단위로 케라메이코스의 ‘데모시온 세마 *demosiōn sema*’에 합장되고,<sup>11)</sup> 매장 의식이 끝나면 ‘도시가 선출한 지적 능력이 탁월한 명망가가 고인들에게 적절한 찬사를 바치는 연설’을 했다.<sup>12)</sup> 전몰자를 위한 아테네의 장례 의식의

10) 장례연설이 포함된 장례 의식이 정확히 언제 제도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아마도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 것은 확인해 보인다. Hornblower (1991), 292-293.; 장례식의 주기도 분명하지 않다. Loraux (1986), Ch. 1. 투퀴디데스는 ‘전쟁 내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마다’(2.34.7)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플라톤의 『메넥세노스』에서는 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행해졌다고 언급된다. (239c6)

11) Thuc. 2.34.3-6. 여기서 사용된 ‘유골 *ta osta*’는 아마도 전장에서 혹은 시신을 인도받아 각 부족에서 화장한 후 남은 뼈와 재를 의미한다. Rees(2018), p. 174. 장례식 전반에 대해서는 Rees (2018), pp. 167-184.

일부로 행해진 이 장례연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테네적이고, 오로지 아테네인들만의 것”이었다.<sup>13)</sup>

장례연설은 통상적으로 (1) 선조들과 전사자들에 대한 칭송, (2) 시민들에 대한 권고, (3) 전사자들의 친지들을 향한 위로의 말로 구성된다. 장례연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인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위로하고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서의 장례연설은 보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테네에서의 전몰자를 위한 장례연설은 그 어떤 예식연설보다도, 그 어떤 민주주의 수업보다도 아테네인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고 시민 교육적 목적을 갖는 정치적인 연설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잊고 아테네를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아테네 장례연설의 실제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고 전장에서 함께 싸우다 함께 묻힌 자들은 이제 ‘이곳에 묻힌 자’<sup>14)</sup> 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더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들이 아닌 집합적인 훌륭한 이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곧 그들이 보여준 탁월한 용기와 행동들은 바로 아테네와 아테네의 이상 때문이라는 점과 아테네를 위대하게 만든 선조들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즉 전몰자들에 대한 칭송은 사실상 아테네 민주정과 아테네의 이상, 아테네가 이루어 온 업적에 대한 칭송이자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폴리스와도 견줄 수 없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과 그 가치들이 다뤄진다. 이중 중요하게 다뤄지는 토포스들은 아테네 민주정의 고유한 특성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함과 법에 대한 복종, 아테네인들이 가진 말과 지성의 힘, 자유에 대한 갈망, 억압과 압제에 대한 항거 등이다.

12) Thuc. 2.34.6.

13) Loraux (1986), p. 1.

14) cf. Thuc. 2.35.1. tois ek tōn polemōn thaptomenois; 2.42.2 he nyn tōnde katastrophē.

15) Loraux (1986), pp. 43-57.

아테네의 업적에 대한 칭송은 대개 신화적인 전투들부터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테네가 헬라스의 보호자, 자유의 수호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변자로서 행했던 위업들을 강조한다. 특히 에렉테우스, 테세우스와 같은 아테네의 건설자 혹은 민주주의의 시초로 여겨지는 영웅들의 업적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예들은 모두 아테네가 문명화되지 않은 이민족인 아마존과 치른 전쟁, 아테네 중심의 패권다툼, 혹은 탄원자들을 보호해주는 이야기 등, 아테네의 그리스 내에서의 위상과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신화들이다. 그리고 이후 살펴보겠지만 기원전 5세기에 국가의 공적인 장례예식 중에 장례연설이 정례화되면서 이후 테세우스 신화가 장례연설에 소재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던 아테네 영웅들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sup>16)</sup> 그것은 이 업적들 또한 ‘영웅 개인의 업적’이 아닌 ‘이들의 나라인 아테네’, 혹은 ‘아테네 민중’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칭송은 연설의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시민 교육적 권고로 옮겨갔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이미 아테네에 대한, 그리고 아테네를 위해 죽은 이들에 대한 칭송은 시민들에게 실천적인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곧 용기를 지닌 훌륭한 사람임을 보이는 것, 그래서 나라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다.<sup>17)</sup> 시민들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모방하고 그들이 이루어 낸 업적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시민들은 고통과 슬픔을 겪는 데에서 행동하는 데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테네 장례연설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들을 찬양하고 교육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런 장례연설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아테네에서 나오게 된 데에는 아테네의 제국화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시기에 행해진 연설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이 있을

16) 반면, 반대 세력의 왕인 에우뤼스테우스, 크레온, 에우몰포스 등의 이름은 거론되기도 했다. Loraux (1986), p. 57, pp. 65-66.

17) Loraux (1986), p. 98.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테네 제국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아도 청중들은 당연히 이를 의식했을 것이다. 많은 전투는 아테네가 침략을 당해서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경우 아테네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행한 해외 원정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죽은 수많은 시민의 죽음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했다. 동시에 그들 스스로에게도 외부적으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테네의 장례연설은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테네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해 보여준다. 연설에서 보여지는 아테네의 모습이 이상적일수록, 아테네가 더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로 그려질수록, 전몰자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수월해질 것이고 연설을 듣는 온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도시적 가치관을 재확인하며 자신들도 기꺼이 폴리스를 위해 의심 없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sup>18)</sup>

### III.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

국가 장례연설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들은 주로 4세기의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원전 5세기 장례연설의 구조와 형식을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남아 있다. 에우리피데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이 바로 그것이다.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첫해인 431년 겨울 그해의 전몰자들을 위해 행해진 국가 장례 의식에서 유명한 장례연설을 했다.<sup>19)</sup> 이후의 논의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에우리피데스는 이 연설의 여러 내용을

18) Mills (1997), pp. 49-50; Pelling (1997), p. 229.

19)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은 Thuc.2.35-46에 실려있다. 이 연설은, 페리클레스가 실제 한 연설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닌, 투퀴디데스가 전체적 취지에 가장 가깝게 *engytatēs xympasēs gnōmēs* 재구성해서 수록한 것이다. 이하 투퀴디데스, 『역사』의 번역은 필자의 것.

다양한 방식으로 『탄원하는 여인들』 안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선, 연설의 서두는 장례연설의 관행과 이 임무의 어려움에 대해 다룬다. 그는 ‘홀륭함을 행동으로 드러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충분andrōn agathōn ergōi genomenōn ergōi kai dēlousthai tas timas’(35.1) 하고, 전몰자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나 모르는 자들에게나 만족을 주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장례식을 장례연설로 끝맺는 것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관습이니 최선을 다해 연설하겠노라고 약속한다(35.1-2). 두 번째 부분은 선조들과 전사자들에 대한 칭송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처음부터 그 땅에 자유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용기aretē’ 덕분이며, 지배 세력을 확장하고 현재의 위대한 아테네를 만든 것은 부모 세대와 바로 지금이 연설을 듣고 있는 아테네의 장년들이 이루어낸 일이라고 칭송한다. 통상적인 장례연설에서는 대개 이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독특하게 과거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아테네의 현재에 대한 칭송을 연설의 주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위대해진 삶의 방식tropoi과 정치체제 politeia(36.4)인 아테네 민주정의 요소들을 소개한다. 우선 그는 널리 알려진 민주정의 규정을 제시한다. 아테네 민주정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dia to mē es oligous all’ es pleionas’ 정체이다. 그 안에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kata tous nomous... pasi to ison’하며 공적인 자리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아닌 ‘탁월함에 따라ap aretēs’ 선출된다(37.1). 또한 아테네는 법, 특히 특히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tōn nomōn...hosoi ep’ōpheliāi tōn adikoumenōn keintai’과 ‘불문법hosoi agraphoi’을 지킨다(37.3). 이어 칭송되는 것이 아테네의 ‘자유eleutheria’이다. 아테네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며, 공적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37.2). 그는 이어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용기와 정치에 대한 관심, 행동하기 전에 토론하는 것 등을 칭찬한다(40.2).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의 제도와 아테네의 아름다움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다. “우리

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만 유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를 행동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로 자랑할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가난을 면하고자 일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40.1) 페리클레스는 이후 폴리스의 일에 신경을 쓰는 아테네인들과 대조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아테네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있는 *apargmōn*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achreion* 사람이라 부른다고 말한다(40.2).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의 용기가 바로 그들이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힘을 과감함, 의무감, 엄치, 그리고 희생의식과 결부시킨다(43.1).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정과 그 힘은 온 ‘헬라스의 본 *paradigma*’이 되며 아테네 전체가 ‘헬라스의 교육 *paideia*’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 장례연설을 민주정의 선언문처럼 사용한다(41.1). 그는 이 장례연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전시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교육한다. 지금 이곳에 누워있는 이들의 죽음은 이전의 선조들이 행한 수많은 일에 대해 보답한 것이며, 그 어느 폴리스도 갖지 못한 모든 아름다움을 온 헬라스에 드러내 보인다.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영원히 기념될만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죽은 이들의 유족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 “행운은 지금 이분들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고통을 뚝으로 받는 것입니다.”(44.1)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전몰자들의 부모, 그리고 아들과 형제들을 위로하고 독려한다. 그의 연설은 “훌륭함에 가장 큰 상을 수여 하는 곳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시민이 산다”(46.1)는 말로 끝난다. 이때의 훌륭함은 물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자들의 용기이다.

#### IV.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

이제 앞의 두 단락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794-1234)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연설 요청의 수락과 사자들에게 대한 칭송, 그리고 시민들을 향한 권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그대가 내게 맡긴 과제가 싫지 않기에, 진리와 정의에 부합되게 내 친구들에 관해 칭찬의 말을 하고 싶소.”(857-859)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 중 다섯, 즉 카파네우스(860-871), 에테오클로스(871-880), 힌포메돈(881-887), 파르테노파이오스(888-900), 튀테우스(901-908)에 대한 칭송이다.

아드라스토스는 카파네우스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부유한 형편임에도 절제할 줄 알며 겸손하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솔직하고 정중했던 인물이었다(860-870).<sup>20)</sup> 아드라스토스는 두 번째 인물인 에테오클로스에 대해서는 카파네우스와는 반대로, 가난한데도 다른 이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칭찬한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고 돈이나 사람에게 예속되어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도시의 평판이 어떠한지 자신의 도시에 충성했던 인물이었다. 세 번째 인물인 힌포메돈은 이름처럼 어려서부터 사냥과 말 타기를 즐기고 궁술을 연마한 인물이다. 그에게서 칭찬할 점은 그가 몸으로 도시에 봉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 인물인 파르테노파이오스

---

20) Collard (1975), pp. 325-326 는 카파네우스에 대한 좋은 묘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는 장례연설의 성격 때문이며, 그의 잘못들은 죽음으로 인해 이미 다 씻겨갈 받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례식 이후 벌어지는 에우아드네의 죽음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한다; cf. Thuc. 2.42.3 “다른 점에서는 부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국을 위한 전쟁에서 그분들이 보이신 용맹함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을 악으로 없애 버리셨고 개인적으로 끼친 해를 상쇄할 정도로 공적으로 더 많은 유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 영웅 중 유일하게 시민이 아닌 재류 외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 아드라스토스는 그가 재류 외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음을 칭찬한다. 재류 외인으로서 그는 평소에는 ‘자신이 성가신 존재가 되거나 도시의 시샘을 사거나 시비를 걸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삶을 살았으며, 아르고스 군에 합류했을 때는 아르고스 태생인 것처럼 헌신하고 나라의 승패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칭송의 대상은 튀테우스이다. 아드라스토스는 그가 칭찬받을만한 ‘큰 명성’을 가진 탁월한 재주꾼이며 행동에서 큰 재능을 가진 자였다고 말한다. 아드라스토스는 이들의 삶에서 신화적인 영웅들에게 어울리는 군사적인 용기가 아닌, 개인적이면서도 폴리스에 어울리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칭송되었을 법한 덕들을 찾아내어 칭찬한다.<sup>21)</sup> 앞서 테세우스는 연설을 요청하며, 여기 누워있는 이들이 “전투 중 누구와 싸우고, 어떻게 서로 상처 입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846-848)고 말했다. 아드라스토스가 전몰자들을 위한 연설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은 죽은 영웅들의 태생이나 배경이 아닌, 그들을 용감하고 도시를 위해 몸 바치게 만든 어린 시절의 양육과 교육, 훈련 그리고 성품이다. 그것이 아테네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영웅들에 대한 칭송에 이어 그는 아테네인들을 향한 권고의 말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좋은 교육은 명예심을 낳고, 용기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겁쟁이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까요. 용기도 배울 수 있는 것이오he d'euandria didaktos.  
마치 어린아이가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것들을

21) 튀테우스와 관련한 연설에 대해서는 텍스트 확정의 문제가 있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앞의 네 명의 영웅들의 경우에는 테세우스가 요구한 대로, 그들의 교육과 폴리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이 되지만, 튀테우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언급되지 않는다. Collard는 튀테우스에 대한 폴리스와 관련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다른 구절로 전송 과정에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Collard (1975), pp. 333-335.; Mills (1997), pp. 48-51.

말하고 듣는 법을 배우듯 말시오.  
 그리고 일단 배운 것은 늙을 때까지 간직되오.  
 그러니 그대들은 자식들을 잘 교육하시오houtō paidas eu  
 paideucte!”(911-917)

아르고스의 영웅들이 그들의 목숨을 아르고스를 위해 바쳤듯이, 아테네는 젊은이들 또한 그런 명예심과 용기를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은 죽은 영웅들이 폴리스에 합당한 삶의 방식과 덕을 지녔음을 칭송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식과 덕을 본받을 것을 권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전몰자들을 위한 국가 장례연설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 V. 아드라스토스 연설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에는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이 있다. 아드라스토스가 칭송하고 있는 인물 중 아테네 청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카파네우스와 튀데우스이다. 카파네우스는 성벽을 올라 불을 던지려 하면서 제우스도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게 된 인물이며, 튀데우스는 자신이 죽인 멜라니포스의 머리를 갈라 골을 파먹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그를 아꼈던 아테나 여신의 외면으로 목숨을 잃게 된 인물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들을 미화하고 칭송하는 것은 매우 기이해 보인다. 특히나 아드라스토스가 ‘이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해tois neoisin astōn tōnde’ 연설해 달라는 테세우스의 요청에 응해 저 이야기들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sup>22)</sup> 또 불의를 저지른 자이자 패배한

22) 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무대 위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말없이 서 있는 죽은 영웅들의 아들들일 것이라고 보는 Smith (1967), p. 169, n.20. 과 같은 학자들도 있지만, 테세우스의 백성들 그리고 이 비극을 관람하고

지도자인 아드라스토스가 옳고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권면한다는 사실 역시 기이하기는 마찬가지이다.<sup>23)</sup>

이런 점들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을 에우리피데스의 의도적 아이러니가 담긴 일종의 풍자로 간주한다.<sup>24)</sup>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엄숙한 장례 의식의 핵심적인 절차로 확립되어 있던 장례연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청중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음으로써 에우리피데스가 장례연설이 대표하는 아테네의 의미와 가치를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장례연설뿐 아니라 작품 전체, 예를 들어 테세우스의 민주정 및 테바이와의 전쟁에 대한 말과 행동의 불일치도 아테네 민주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풍자로 간주한다.<sup>25)</sup>

하지만 필자는 그런 견해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에우리피데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의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 중요했던 것은 시신 반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자(死者)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이상화하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다짐한다는 사실이었다. 에우리피데스의 청중들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을 들으며 전쟁 중에 죽은, 특히 텔리온에서의 사자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들에게 튀데우스 같은 인물이 칭송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지도자가 텔리온의 사자들을 위해 장례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떠올렸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에우리피데스의 의도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테바이 전사들의 시신 반환이라는 신화적인 소재를 차용하고 있음에도

---

있는 아테네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Collard (1972), p. 320.

23) Smith (1967) pp. 162-163.

24) Fitton (1961) pp. 430-461; Smith (1967) pp. 151-170; Gamble (1970), pp. 385-405.

25) Fitton (1961) pp. 442-444.

불구하고, 에우리피데스가 『탄원하는 여인들』을 텔리온 전투라는 당대의 사건과 연관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650-725행에서 카파네우스의 시종은 테세우스가 테바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 직전 먼저 등장해서 전투과정을 보고한다. 그런데 그의 전투 장면의 묘사는 투퀴디데스가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실제 텔리온 전투의 양상과 상당히 닮아있다. 특히, 아르고스 사자가 전하는 ‘기병대의 우세함’과 ‘양쪽 좌익의 패주’에 대한 보고는 그것이 과거가 아닌 당대의 전투 묘사임을 분명히 느끼게 했을 것이다.<sup>26)</sup> 청중들이 신화시대가 아닌 당대의 현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치는 테세우스가 민주정의 옹호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적 배경을 생각하면, 테세우스는 민주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왕이고, 아테네는 민주정이 아닌 왕정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는 테바이 전령과의 논쟁(399-584)에서 왕정이 아닌 민주정을 옹호한다. 이런 노골적인 시대착오anachronism을 통해서 에우리피데스는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을 사실상 현재적인 사건으로 만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테네 장례연설의 사회적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그것을 위해 장례연설은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이상화 및 아테네인의 자기 정체성 확인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에우리피데스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 안에 이 두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드라스토스는 아르고스의 왕이며, 죽은 아르고스의 영웅들을 위한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에 담을 수 없었던 저 두 내용, 즉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이상화 및 아테네인의 자기 정체성 확인을 작품 내의 다른 부분 속에 담아낸다. 이것은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을 작품 내의 다른 내용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26) Thuc. 4.97-101.



우선 에우리피데스는 아테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286-380행에서의 테세우스와 아이트라와의 대화 속에서 다룬다. 아이트라라는 테세우스가 신중하게 행동하며 다른 도시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일은, 도시를 위해 명성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비겁하게 물러선 일이며 자신이 겁쟁이임을 드러내는 것(315-319)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네 도시는 노고를 통해 *hentois ponoisin* 커가고 있다. 그러나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도시들은 *hai d’hsychoi* … *poleis* 조심만 할 뿐 그들의 시선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323-325)고 덧붙였다. ‘조용한 도시 *hesychoi poleis*’는 당시 폴리스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이때의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는 *hesychos*로 *apragmōn*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용례로 사용된다.<sup>27)</sup> 그리고 바로 이 단어를 페리클레스 연설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에우리피데스 당시에 이 ‘*hesychos/apragmōn*’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polypragmōn*’과 대비되어,<sup>28)</sup> 지나치게 폴리스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태도와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테네인들은 바로 자신들을 본성상 활발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들로 여겨왔다. 그리고 이런 아테네인들의 성향은 다른 폴리스 인들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진 특성이었다.<sup>29)</sup> 그리고 이것은 시민 개개인의 성격이 아닌 폴리스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종종 사용되었다.<sup>30)</sup> 우리는 이 말에서 당시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해가던 아테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노고를 감당하는 폴리스는 어떤 폴리스인가? 그것

27) 명사로는 각각 ‘*hesuchia/apragmosynē*’, ‘*polypragmosynē*’가 사용되었다.

28) Allison (1979) pp. 10-22.

29) Thuc.1.70.1-7 “(라케다이몬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이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 민첩하고, … 능력 이상으로 저돌적이고, 상식 밖의 모험을 하며 역경에 맞닥뜨려도 낙천적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으며 … 그들은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바깥세상을 떠돌아 다닙니다.”

30) Finley (1938), p. 33. 특히 투퀴디데스 6권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 원정을 촉구하며 아테네는 본성상 *polypragmon*할 수밖에 없고 *apragmon*한 아테네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은 도움을 청하는, 탄원하는 이들을 돕는 폴리스이다.<sup>31)</sup> 동시에,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서 확장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테네가 바로 그런 폴리스라는 것을 당시의 역사가를 통해서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sup>32)</sup> 가만히 있는 도시, 그래서 비겁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테세우스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전쟁을 한다. 이 작품에서 그 전쟁은, 헬라스의 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쟁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기 위해서는 아드라스토스와 아르고스 군은 테세우스와 함께할 수 없다. 테세우스와 그의 아테네는 정의로운 헬라스의 수호자와도 같다. 아이트라에게 설득되어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도 민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대목에서도 우리는 아테네 민주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테세우스는 아이트라의 설득으로 테바이 원정을 결정했지만, 이 일은 아테네 도시 전체가 승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도시가 이 계획을 승인해야 해요. 제가 원하니까 도시는 승인해주겠지요.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 백성들은 제게 더 호의적이 될 거예요. 제가 도시를 해방하고 민중에게 똑같이 투표권을 나눠주었을 때, 그들을 지배자로 만들었으니까요 gar katestēs’ auton[dēmon] es monarchian eleutherōsas tēn isopsēphon polin. 제 말을 입증하기 위해 저는 아드라스토스를 데리고 시민들이 모인 곳으로 es plēthos astōn 가겠어요.”(349-355) 에우리피데스는 테세우스의 말을 통해 시민들이 다스리는 나라, 곧 민주정의 탄생을 들려준다.

31) 투퀴디데스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아테네 제국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줌으로써 동맹국들로부터 헤게모니아를 넘겨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Thuc. 1.96.1; 이 비극의 상연연대보다는 후에 기록되었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415년경의 알키비아데스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이 제국을 우리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배하기 시작한 다른 모든 폴리스들이 그러하듯이, 비헬라스인이든 헬라스인이든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언제나 가까이 지원하면서 말이지요.”(Thuc. 6.18.2)

32) 에우리피데스의 『메테이아』에서도 비극의 플롯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아테네의 아이게우스왕의 등장은 탄원자의 보호자로서의 아테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가 있다.

장례연설의 고유한 내용 중 나머지 하나, 즉 아테네 민주정의 이상화는 어떤가? 에우리피데스는 그것을 테바이 전령과 테세우스의 논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399-584).<sup>33)</sup> 테바이에서는 아테네로 전령을 보내 아테네가 테바이와 아르고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한다. 아테네의 ‘독재자tyrannos’가 누구인지 묻는 전령의 질문에 테세우스의 이곳에는 독재자가 없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아테네는 ‘어느 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도시 ou archetai henos pros andros, all’eleuthera polis’이다(405). 이곳에서는 ‘민중은 매년 차례에 따라 선출되어 관직에 오르고demos d’anassei diadoxaisin en merei eniausiaiain’ 백성들이 관직에 오르며(406-7), 부자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chō pen ēs echōn ison”(408). 테세우스의 이 말은 페리클레스의 장례연설에서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설명의 상당히 여러 부분과 일치한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체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dia to mē es oligous all’ es pleionas’이기 때문에 민주정dēmokratia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는, ‘법률에 따라 모두가 평등kata tous nomous…pasi to ison’하며, ‘추첨이 아닌 탁월함에 의해서oud’ apo merous… ap’ aretēs’ 공적인 일이 맡겨지며, 누구든 ‘가난에 따른 신분의 미약함으로 인해oude kata penian… axiōmatos aphaniciāi’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echōn ge ti agathon drasai tēn polin’ 제약받지도 않는다(37.1). 에우리피데스는 계속해서 테바이 전령의 비판에 대한 테세우스의 반론 속에서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 듣게 만든다. 전령의 비판은 이 작품이 상연된 당시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군중은 연설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도시를 제대로 다스릴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도시를 움직이며 인기를 얻는다. 가난한 이들은 지식이 없는 건 아니라도, “일 때문에 정치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ergōn hypo ouk and dynaito pros ta koin’apoblepein.”(421-2) 그의 이 비판은 페리클레스

33) 테세우스와 전령의 논쟁 전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acleod (1983), pp. 147-149.; Finley (1938), p. 41.

가 아테네인들에 대해, 그들 모두가 ‘나라의 일에 신경 쓰며 politikōn epimeleia’ 공적인 일에 참여한다고 한 말을 상기시킨다(40.2). 이 비판에 대해 테세우스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가 더 유익하다고 하며 그런 나라에서는 ‘공공의 법 nomoi koinoi’이 있고(429-430),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등한 권리 tēn dikēn isēn’를 가지며(434), 폴리스의 문제들에 대해 안전을 제시하고 발언할 ‘자유 eleutheros’가 있다고 말한다(436-439). 이 항목들 역시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다.<sup>34)</sup> 에우리피데스는 이들의 논쟁을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다뤄진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또다른 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를 살았던 투퀴디데스의 『역사』의 여러 곳에 나오는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아테네 정치인들 간의 논쟁, 혹은 아테네에 대한 다른 폴리스들의 비판도 이들의 대화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35)</sup>

34) 페리클레스는 장례연설에서 여러 차례 아테네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이 자유를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는다. (cf. “그들의 탁월성을 통해 이 땅을 자유로운 상태로 후손들에게 계승하여 현재까지 물려주었습니다 mechri toude eleutherin di’aretēn paredosan.”) (Thuc. 2.36.1); “우리는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정치 활동을 할때도, 서로의 일상사에 대한 의혹에서도 자유롭습니다 eleutherōs de ta te pros to koinon politeuomen kai es tēn pros allēlous tōn kath’ hēmeran epitēdeumatōn hypopsian.”) (Thuc. 2.37.2) 그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35) 실제로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다뤄진 아테네 민주정의 거의 모든 기준이 그의 이 두 개의 대화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 Loraux (1986), p. 181. Table 2, pp. 214-217; Mills (1997), p. 47.

## VI. 비탄과 애도

지금까지 우리는 에우리피데스가 『탄원하는 여인들』 내에서 아테네 장례 연설의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내용들은 청중들로 하여금 텔리온 사건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죽은 전사들을 위한 일종의 장례 의식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에우리피데스가 극적으로 표현해낸 장례 의식은 앞서 논의된 내용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전몰자들을 위한 장례 의식은 사적인 애도를 가능한 한 배제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장례 의식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여성들의 애도는 공식적인 절차의 전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에우리피데스는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이 애도의 절차까지도 극 안에 담아낸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작품 후반부 전체를 텔리온의 사자들을 위한 일종의 거대한 극적 장례 의식으로 만들어낸다.

794-837행에서 죽은 아르고스 영웅들의 어머니들은 그토록 바랐던 아들들의 시신이 운반되어 오자 얼굴을 할퀴고 가슴을 치며 첫 번째 애탄가(kommos)를 부른다. 영웅들의 시신을 이끌고 온 아드라스토스는 코로스에게 죽은 아들들을 위해 “내 신음 소리에 화답하여 큰소리로” 애곡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애곡은 테세우스가 그들을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아드라스토스 : 이오이오(iō iō)

코로스: 내가 내 이 고통으로 인해(tōn g'emōn kakōn egōn)

아드라스토스 : 아이아이(aiai). (805-806행)

아드라스토스: 그대는 가지고 가지고(echeis echeis)

코로스: 이 고통의 엄청난 무게를

아드라스토스: 아이아이(aiai) (819-820행)

아드라스토스: 아이아이 내게 내게 (ai ai moi moi) (828행)

아드라스토스의 연설이 끝나고, 영웅들의 시신이 아드라스토스, 테세우스, 그리고 전사자의 아들들이 장례행렬과 함께 무대 밖으로 나간 후, 코로스는 비탄의 노래를 부른다.(955-979) 그리고 이후 아들들이 시신의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들고 들어오면, 이들의 노래는 또다시 애곡으로 바뀐다(1123-1163). 이번에는 아드라스토스가 아닌 유골함을 든 아들들이 선창자가 되어 앞선 애탄가를 부른다. 이 두 번째 애탄가 역시 먼저의 것과 마찬가지로 비탄의 표현 'iō iō'와 중복적인 단어들로 그들의 감정을 더 고조시킨다.

아이들: 제가 가져옵니다, 가져옵니다. (pherō pherō)  
가련한 어머니, 불속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1123-1124행)

...

코로스: 이오이오(iō iō) (1127행)

...

아이들: 당신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apai apais) (1132행)

...

코로스: 이오이오(iō iō) (1134행)

이 코로스의 합창은 작품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음악적, 감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들의 슬픔의 노래는 아이트라를 그 슬픔에 동참시키고, 테세우스를 감동하게 한다. 첫 애탄가에서 그들은 격렬한 슬픔을 아드라스토스와 함께 애곡하면서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화장된 후, 이번에는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더 큰 곡소리로 비통해한다. 에우리피데스의 극의 코로스가 일반적으로 열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이 두 번째 애탄가는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의 대규모 합창이 된다. 그곳에 같이 서 있었을 세 명의 배우-테세우스, 아드라스토스, 그리고 이피스와 장례행렬에서 돌아온 말없는 배우들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함께 무대에 함께 서서 부르는 이 애곡은 시각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강력한 스펙타클을 제공했을 것이다.<sup>36)</sup>

이 두 개의 애탄가는 실제 장례식에서의 시신의 안치prothesis와 무덤가에서 행해지던 가장 중요한 과정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이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 친지들의 역할이었다. 남성들이 장례행렬을 준비하는 동안, 여성들은 시신을 둘러싸고 전문 선창자에 화답하며 의례에 따른 애곡을 했다. 아버지, 아들과 아들을 제외한 남성들은 이 장례식의 애곡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우리피데스는 장례연설에서 아드라스토스로 하여금 영웅들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를 코로스의 애곡에 합류시킨다. 그것은 전쟁의 책임이 있는 아드라스토스가 연설로 영웅들의 위대함을 칭송할 수는 있어도, 어떤 말로도 그 코로스를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는 또한 그를 여성들의 애곡에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사회적 역할을 약화시켜 시신들을 반환해온 테세우스와 대비시킨다.

에우아드네와 이피스가 등장하는 980-1122행도 실제 장례 의식과 연관해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카파네우스의 아내인 에우아드네의 자살 장면은 전통적인 테세우스의 아르고스 시신반환 신화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이다. 작품 후반부에 등장해서 100행이 지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에우아드네, 그리고 아들과 딸, 이중의 죽음에 절망하다가 퇴장하는 그녀의 아버지 이피스의 모습은 돌발적이고 급작스럽게 보인다. 실제로 콜라드는 이 부분을 장례 의식 절차와 연결될 수 있는 앞뒤의 내용과 전적으로 독립된 자족적 부분으로 본다.<sup>38)</sup>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 역시 실제 장례식에서의 관습과 연관해보면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에우아드네는 신부의 복장을 한 채 남편의 불타는 시신 위로 떨어져

36) 다른 작품에서도 말없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인물들은 더러 있었지만, 이 극에 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대사가 주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을 제 2의 코로스로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을 애탄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코레고스는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극 안에서 대사를 하는 부분을 배치한 작가는 에우리피데스가 유일하다. Collard (1975), pp. 18-21, p. 391.

37) Alexiou (1974), pp. 5-6; Toher (2001), p. 336.

38) Collard (1972), pp. 48-49.

목숨을 끊는다. 일견 매우 기이한 설정으로 보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대개 시신의 염은 미혼 여성, 혹은 갓 결혼한 여성이 신부 복장을 한 채 행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것이 장례식의 한 부분으로 보이도록 에우리피데스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남편의 무덤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오르케스트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몸에 상처를 내고 울부짖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던 코로스,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에우아드네, 딸과 아들,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이피스. 이렇게 죽은 자들을 향한 애도는 점차 커져간다. 이들의 대규모 합창과도 같이 애탄가와 에우아드네의 자살과 이피스의 비탄은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면서 이 작품의 비극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sup>39)</sup>

## VII. 장례 의식의 극화dramatization로서의 『탄원하는 여인들』

『탄원하는 여인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793행: 아르고스인들의 탄원과 테세우스의 시신 반환 원정
- 794-836행: 코로스와 아드라스토스의 사자들을 위한 애곡
- 837-917행: 아드라스토스의 장례연설
- 918-954행: 테세우스의 추가 연설 및 장례에 대한 논의
- 955-1122행: 에우아드네의 자살과 코로스와 이피스의 비탄
- 1123-1164행: 코로스와 아이들의 사자들을 위한 애곡
- 1165-1234행: 아테나의 등장과 아테네와 아르고스의 서약

이 요약은 작품의 중심내용, 즉 794-1164행 전체를 거대한 장례 의식의

---

39) Toher (2001), p. 341.



재현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청중들이 경험하는 것은 죽은 아르고스인들을 위한 장례연설과 그 앞뒤에 등장하는 애곡 장면이지만, 델리온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청중들에게 그 과정은 아테네의 사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는 경험이었음이 분명하다. 에우리피데스는 장례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과 자신들의 정체성 확인을 연설 앞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집어넣는다. 그는 여기에 더해, 아드라스토스 연설 전후에 여인들의 애곡을 배치하고 에우아드네의 자살 장면을 이 신화에 추가함으로써, 이 비극을 지켜보고 있던 청중들이 직접 장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한다. 그들은 전몰자를 기념하는 공적인 장례 의식이 가진 ‘아테네 민주정의 위대함’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아테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적인 애도에서 배제된, 하지만 실제 장례 의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를 코로스를 통해 듣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완화하고 치유 받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고 여겨지는 에우아드네의 자살 사건도 장례 의식의 한 부분인 장례 이후의 애도와 가족의 슬픔의 감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이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 이 작품은 장례 의식 전체를 포함하는, 말하자면 장례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탄원하는 여인들』은 아테나 여신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끝을 맺는다. 아테나 여신은 아르고스인들에게 아테네가 그들을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징표로 선물을 바치며 영원한 동맹을 서약할 것을 요구한다. 에우리피데스는 이 요구를 이 작품 마지막에 등장 시켜 이 신화적 사건에 역사적 맥락을 부여한다. 이 마지막 장면은 『탄원하는 여인들』의 상연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실제 아테네는 아르고스와 기원전 420년 7월에 동맹을 맺고 416년에 이를 갱신한다.<sup>40)</sup> 그렇다면 이 작품은 420년 이후 상연된 것일까?

40) Thuc. 4.97.2-3; 5.57; 82.5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 경우라면 아테네가 아르고스와의 협약을 맺을 것을 기념하여 이 작품을 상영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실제 조약과 상관없이, 텔리온 사건 직후에 상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아테나 여신이 언급하고 있는 조약의 형태와 실제 맺어진 조약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에우리피데스의 이 작품은 아테네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또 그들의 역사를 반영하고 또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에우리피데스, 천병희 역 (2009), 『에우리피데스 전집』, 1권, 일산: 도서출판 숲.
- 투퀴디데스, 천병희 역 (2011), 『역사』, 일산: 도서출판 숲.
- 페리클레스 외, 김현 외 역 (2015),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서울: 민음사.
- 플라톤, 이정호 역 (2008), 『메넥세노스』, 서울: 이제이북스.
- Alexiou, M. [1974] (2002). *The Ritual Llament in Greek Tradi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Allison, J. W. (1979), "Thucydides and Polypragmosyne", *American Journal of Ancient History*, 4: 10-22.
- Burian, Peter (1985), "Logos and Pathos: The Politics of the Suppliant Women", in Peter Burian (ed.), *Directions in Euripidean Criticism: A Collection of Essays*, pp. 129-55,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eadel, E. B. (1941), "Resolved Feet in the Trimeters of Euripides", *Classical Quarterly*, 35: 66 - 89.
- Collard, C. (1972), "The Funeral Oration in Euripides' Suppliant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9: 39-53.
- Collard, C. (1975), *Euripides' Supplices*, Groningen: Bouma's Boekhuis.
- Euripides, J. Diggle (ed.) (1967) *Euripidi Fabulae*, Oxford.
- Finley, J. H. (1938), "Euripides and Thucydides",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49: 23-68.
- Fitton, J. W. (1961), "The Suppliant Women and the Herakleidae of Euripides", *Hermes*, 89: 430-61.
- Foley, Helene (2001), *Female Acts in Greek Trage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mble, R. B.(1970), "Euripides' Suppliant Women: Decision and Ambivalence", *Hermes* 98: 385-405.
- Goossens, R. (1932), "Périclés et Thésée: à propos des Suppliantes d'Euripide", *Bulletin de l'Association Guillaume Budé*, 34: 9-40.

- Goldhill, Simon (1992), "The Great Dionysia and Civic Ideology", in John Winkler and Forma I. Zeitlin (eds.) *Nothing to do with Dionysos*, pp. 97-12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sk, J. (2013) "Leadership and individuality in the Athenian funeral oration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56 (1):49-65.
- Hornblower, S. (1991), *A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raux, N. (1986), *The Invention of Athens: The Funeral Oration in the Classical 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leod, C. (1983), *Collected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eline, A. N. (1994), "Political Themes in Euripides' Suppliant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15: 219-252.
- Mills, Sophie (1997), *Theseus, Tragedy and the Athenian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lling, Ch. (1997), *Greek Tragedy and the Histori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es, Owen (2018), "Picking over the bones: the practicalities of processing the Athenian war dead", *Journal of Ancient History*, 6(2): 167-184.
- Smith, W. D. (1967), "Expressive Form in Euripides' Suppliants",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71: 151-70.
- Thucydides, I. B. Alberti (ed.) (1972-2000), *Thucydidis Historiae*, vol.3, Rome: Typis Publicae Officinae Polygraphicae
- Toher, Mark (2001). "Euripides' Suppliants and the Social Function of Funeral Ritual", *Hermes*, 129(3): 332-343.
- Wohl, Victoria (2015), *Euripides and the Politics of For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untz, G. (1955), *The Political Plays of Euripid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Abstract

Euripides' *Suppliants* and Athenian Democracy

Jang, Si-Eu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Euripides makes use of the subject of the Delion case in a dramatic way in the *Suppliant Women*. First of al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this work contains a funeral speech, which was a well-established genre at that time. In this respect, Adrastus' funeral speech is closely compared with and explained by reference to Pericles' funeral speech,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genre. This article also accounts for the meaning of the scene of Euadne's suicide and the *kommos* of the chorus, both of which are criticized for inconsistency and exaggerated emotion. These scenes can be made sense of as a part of the dramatized funeral ceremony.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Suppliant Women* is intended to comfort the Athenians and to enhance the pride of the Athenians by dramatically recreating the funeral rituals for the Athenians who died in Delion.

**【Keywords】** *Iepitaphos Logos*, Funeral Ceremony, Euripides, Pericles, Delion Battle, Athenian Democracy

논문 투고일: 2020. 03. 31

심사 완료일: 2020. 04. 16

게재 확정일: 2020. 04. 16

